self closing 태그들 마지막 공백+역슬래쉬는 HTML버전에 따라서 필용할수도 없을수도 있지만 무조건 해주는게 좋다 !

label 태그는 input 태그와 같이 써야 함.

label 태그의 for attribute 와 input 태그의 id attribute에 같은 값을 넣어야 함

그럼 label 클릭이 for과 같은 id를 가지고 있는 input을 실행시킴

id는 어떤 태그든 가질 수 있는 attribute

id는 unique identifier임. element당(태그) unique한 하나의 id만을 가져야 함. (그래야 정상 작동함) 앞서 말했듯이 브라우저는 에러같은거 안냄. 걍 원하는대로 작동을 안할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css가 id를 통해 contents의 how를 설정하기 때문임.

가장 많이 보게 될 태그 중 하나가 div 태그.

div은 tag들을 구분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됨. div박스안에 원하는 태그들을 넣는 것.

기본적으로 줄바꿈(옆에 다른게 오지 않음) 그리고 semantic하지 않음 (보는것만으로 무슨뜻인지 알 수 없음). 애초에 의미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 그냥 박스안에 담는거니까. 이게 무슨 박스인지 div태그만을 보고 알기는 힘들겠지? 예전에는 semantic한 녀석들이 없어서 웹사이트들이 div로 뒤범벅이였음.

semantic한 태그는 코드 자체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녀석들임.

header태그. head와 헷갈리면 안됨. header는 body안에 들어가는 태그임. 기본적으로 div태그를 대체할 수 있음. 그리고 얘는 semantic임. 왜냐면 header는 말그대로 header컨텐츠를 담고있을거라는걸 보자마자 알 수 있으니까

즉 div id=”header” 라고 써도 되지만, header라고 쓰는게 의미를 전달하기에 편하다는 것 같음.

main태그. 마찬가지로 div id=”main” 해도 되지만 main이라고 쓰자. 이 파트가 해당 사이트의 main에 해당하는걸 semantic하게 전달해 주니까

footer태그. 꼬릿말을 위한 태그. 마찬가지로 div id=”footer”이나 동일 (애초에 div 라고 해도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것은 동일함. id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게아니라면)

p태그. paragraph. 단락이나 절 수준의 text를 사용할 때. 물론 이안에 짧은 글을 넣어도 오류는 생기지 않음. 다만 semantic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적절하지 못함

span태그. 한문장 수준의 짧은 text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이 안에 긴 text를 넣어도 문제는 없음. 태그가 가지고 있는 semantic한 의미와 다른 형태로 써버렸을 뿐임.

이외에도 많은 semantic한 태그들이 존재.

즉 코드를 짤 때부터 semantic하게 짜면, 올바른 태그를 사용하면 보고 이해하고 파악하는게 빨라짐.

당연하게도 모든 태그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 많이 쓰는 태그들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고 모르는 태그는 그때그때 검색해서 쓰면됨. 이런 태그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지.

CSS

우선 CSS가 어떻게 HTML과 섞이는가? 크게 2가지 방법이 존재.

첫번째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HTML파일 안에 HTML코드와 CSS코드를 다 넣어두는 것

두번째는 좀더 추천되는, professional한 방법으로 HTML과 CSS를 분리

첫번째 방법으로 css를 사용할 때 (inline css)

style태그를 사용함. style태그는 head태그안에 있어야 함. 그리고 CSS코드를 style태그 안에 작성하면 됨.

두번째 방법으로 css를 사용할 때, css파일을 include, (external css)

css파일을 만듬. 그리고 html파일에서 link태그를 이용하여 css파일과 연결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css파일을 다른 html파일에 연결시켜 쓸 수 있음. css가 길어질 때 html문서 보기쉬워지기도 하고

css파일에서 코드 작성할 때 크게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1번은 css가 하는 일은 HTML태그를 가리키는 일이라는 것. 이때 가리키는 것 자체를 selector 라고 함. 그리고 그 태그가 크기가 뭐고 색이 뭐고 등등을 property 라고 함. selector가 많은 property를 가질 수 있고, 중괄호로 묶어서 씀.

즉 css는 HTML의 태그를 잡아와서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

태그처럼 속성도 매우 많고 다 외울 수 없음. 찾아서 써야함 그때그때.

다만 css속성은 지켜야 하는 문법이 있음.

속성: 값;

형태로 사용

참고로 밑줄 \_ 이나 슬래쉬 / 공백 같은거 속성이름에 안쓰임 – 가 쓰임

css에서 selector할 때, 태그만으로 select하면 해당 태그를 전부 지칭하는 것이 됨. 해당 태그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특정 태그만을 가리키기 위해

css에서 box는 매우 중요하고 많이 쓰임. 참고로 박스는 기본적으로 옆에 아무것도 올 수 없음.

옆에 다른 element가 못 오는걸 block이라 부름 (box보다 block이 정확한 명칭)

div, p, 등이 해당함. 대부분의 box는 블락이라고 생각하면 됨.

박스가 아닌것들은 하나의 element 옆에 다른 element가 올 수 있음. inline이라 부름 (in the same line의 준말). block이 아닌 것들, inline인 것들이 소수임.

span, a, image 등

하지만 당연하게도 inline과 block은 바꿀수 있음. inline이 bolck이 되게하는거나 그 반대나 다 가능. 이걸 담당하는 property가 dispaly

inline은 높이와 너비가 없음. block은 높이와 너비가 존재.

html태그에 css넣으면 웹사이트 전체가 영향을 받음.

브라우저가 element에 자동으로 부여하는 많은 속성들이 존재.